

대덕밸리 '정밀제어계측 클러스터' 결성

위원장에 케이맥 이종환 대표... 공동마케팅, 산업인프라 구축 등

대 덕밸리 '조정밀 제어계측 클러스터'가 결성됐다. 지난 8월 17일 오후 대덕테크노밸리 케이맥 생산센터 3층 회의실에서 조정밀 제어계측분야의 기업인 30여 명이 모여 '대덕밸리 조정밀 제어계측 클러스터' 발족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조정밀 제어계측 클러스터는 기업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을 비롯해 정보교류, 공동마케팅, 조정밀 제어계측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활동을 공동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날 모임에는 대덕밸리 임채환 정책자문관, 대전시 박준병 전략산업기획단장, 대전시 남궁인 첨단산업진흥재단 지능형로봇사업단장, 한남대학교 정강옥 교수, 대전대학교 이경휘 교수, 덕인 임재선 대표, 로봇존 유윤정 대표, 하이로보텍 윤상중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모임에서는 각 기업들간 소개와 함께 모임 운영을 위한 임원을 선출했다. 모임 위원장에는 케이맥 이종환 대표가 추대됐으며, 추진위원에는 세주엔지니어링 이원배 대표, 텀스 순철 대표, 인텍플러스 임쌍근 대표가 각각 선출됐다.

이번 클러스터 결성을 위해 이미 지난 7월 22일 인텍플러스, 덕인, 지스트, 케이맥 등 10여 개 업체의 대표와 대전시 박준병 전략산업기획단장이 1차 모임을 가진 바 있다. 이 정밀제어계측 클러스터의 모임은 매월 3째주 화요일 열릴 예정이다.



신제품 신기술

킴포트, 악취잡는 미생물 탈취제 '하안샘 락토피아' 출시



대 덕밸리 바이오환경벤처기업 킴포트(대표 김영주)는 내년 2월 악취방지법의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미생물을 이용한 탈취제인 '하안샘 락토피아(Lactopia)'를 개발, 출시했다고 밝혔다.

1년 반 동안 연구과정을 통해 개발한 락토피아는 유산균, 광합성 세균, 효모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EM(유용미생물)을 혼합해 만든 제품으로 인체에 전혀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으로 된 이 제품은 살포하는 곳의 상태에 따라 40~50배의 농도에서 100~200배의 농도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축사 내·외부, 오폐수 처리장 등 악취가 심한 곳에는 2~3일에 한번 일 3회 사용하면 탈취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오폐수 처리장에서는 폐수와 함께 조금씩 같이 흘려보내면 악취가 감소된다. 실제로 시험용기에 오염물질인 암모니아 가스를 60ppmv가 되도록 조절한 후 락토피아를 100배 희석해 사용한 결과 30분 경과 후 1ppmv 이하로 감소했다.

또 인체에 무해한 유용 미생물을 사용한 이 제품은 유산균이 들어 있어 가축들의 소화 작용을 도와 설사는 물론 배변시 악취가 덜한 배설물이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며, 유해 부패세균에 대한 항균작용을 통해 질병 원인균의 증식과 파리, 모기 등 해충 발생을 억제시키기도 한다. 아울러 이 제품을 토양에 살포하면 토양미생물인 광합성 세균이 산성화된 토양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기능을 하여 친환경농법에도 사용이 가능하다.